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 | 非 MMORPG 장르 모바일 게임 쏟아진다

21일부터 서비스하는 라인게임즈의 모바일 RPG '엑소스 히어로즈', 27일 출시하는 컴투스의 스토리 RPG '워너비챌린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NHN의 육성 시뮬레이션 '애프터 라이프'(왼쪽부터). RPG, 스포츠, 육성 시뮬레이션 등 색다른 특징을 앞세운 비(非)MMO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 | 라인게임즈·컴투스·NHN

수집·로맨스·육성…'이색 장르' 게임의 역습

수집형 RPG '엑소스' 100만명 예약
로맨스 판타지 '워너비챌린지' 기대
육성게임 '애프터 라이프' 여심공략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왕좌를 향한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색다른 특징을 앞세워 게임 팬을 공략하는 비(非)MMORPG 게임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MMO가 아닌 RPG부터 스포츠와 육성 시뮬레이션까지 그 장르도 다양하다.

먼저 다양한 속성을 가진 RPG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라인게임즈는 21일 우주가 개발한 모바일 RPG '엑소스 히어로즈'의 서비스를 시작한다. 200여 종의 캐릭터를 수집·육성하며 미니게임과 레이드, 개인 간 대전(PvP)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엑소스 히어로즈'는 최근 사전예약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의 유저를 모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컴투스는 '워너비챌린지'를 27일 서비스할 예정이다. 현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자회사 데이세븐이 개발한 스토리 RPG다. 고품질 그래픽과 흥미진진한 스토리 라인을 갖춘 로맨스 판타지 풍의 게임이다. 캐릭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패션 스타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를 준다.

이밖에 네시삼십삼분은 모바일 해전 시뮬레이션 RPG '가디언 프로젝트'의 사전예약을 18일 시작했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 예정이다.

기대를 모으는 스포츠 장르 게임도 있다. 게임빌은 26일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를 국내 출시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17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빌 프로야구'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6년 만에 돌아오는 시리즈인 '슈퍼스타즈'는 기존작의 인기 요소인 '마선수', '나만의 선수' 등 육성 요소를 계승·발전시켜 일반 스포츠게임과는 다른 재미를 준다. 풀3D 그래픽을 적용해 몰입감을 높인 것도 강점이다.

연내 출시를 목표로 NHN이 준비 중인 '애프터 라이프'는 여성 유저를 겨냥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플레이보이부터 과학도까지 개성 있는 20명의 캐릭터들을 매니징하는 게임이다. 엄상현과 남도형, 심규혁 등 내로라하는 국내 성우 20명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 현재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데 최근 30만 명을 넘어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금호고속 '고속버스 VR' 공동 추진

KT는 금호고속과 '고속버스 가상현실(VR)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VR 서비스(사진)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고속버스 전용 '슈퍼VR' 상품을 개발하고, 금호고속은 시범 서비스 운영과 유통을 맡는다. 28일부터 서울-광주 구간의 금호고속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10대의 슈퍼VR 단말을 비치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80여 편의 최신 영화를 고화질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스포츠·공연·예능 등 VR 영상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24만명 방문한 '지스타 2019'…역대 최고 성과

지난해 대비 일반 방문객 3.9% 증가
펄어비스·넷마블 신작이 흥행 주도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며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내렸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4일 동안 2019 지스타 행사장을 찾은 일반인 방문객은 24만4309명(추정치)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3만5133명보다 약 3.9% 증가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 기업간거래(B2B)관을 찾은 유료 바이어도 지난해(2169명)보다 약 12.3% 늘어난 2436명을 기록했다.

이번 지스타는 넥슨의 불참 등으로 흥행 실패 우려가 제기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보는 게임' 트렌드와 참가사의 기대 신작이 조화를 이룬 결과다. '도깨비', '플랜8', '붉은사막', '섀도우아레나'를 출품한 펄어비스와 'A3:스틸얼라이브',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제2의 나라', '매직: 마나스트라이크'를 선보인 넷마블이 흥행을 주도했다.

'지스타 2019'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 사진제공 | 지스타조직위원회

또 아이들에게 큰 인기인 '브롤스타즈'를 대대적으로 소개한 슈퍼셀도 한 축을 담당했다. 전시장 곳곳서 열린 각종 e스포츠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밖에 야외 이벤트광장과 이벤트도로(차 없는 거리)에서 치러진 '코스프레어워즈'와 '코스프레 체험', '크리에이터 토크쇼', 'BJ 버스킹 공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장은 "올해 '지스타'는 2년 연속 글로벌 게임기업이 메인스폰서를 담당하고, 새 참가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의미있는 결과들을 남겼다"며 "앞으로도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게임으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아우르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T, 골드번호 5000개 추첨 접수

SK텔레콤은 올해 마지막 골드번호를 추첨한다. 이번에 공개한 번호는 9가지 유형으로 총 5000개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원하는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29일까지 SK텔레콤 공식인증대리점, T월드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만 4세 이상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번호변경 고객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골드번호를 사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골드번호 당첨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12월 5일 당첨자를 선정해 당일 개별문자로 안내한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